

기록보존용어집

지찬호 · 김호균 편저, 도서출판 세화, 2019

박미애(Park, Mi-ae)*

제임스 오톨(James O'Toole)과 리처드 콕스(Richard Cox)에 따르면 기록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시간이 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말의 의도적인 대체물”로서의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기록한다는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특정한 매체에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기록은 보존을 전제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preservation)은 예방적 보존(preventive preservation)과 처방적 보존(prescriptive preservation)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예방적 보존은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와 취급, 보존용품의 사용, 보존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보존서고, 기록물에 적합한 보존환경 유지 등 기록물에 대한 열화·훼손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기록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이다. 처방적 보존은 열화·훼손된 기록물을 보존처리(conservation), 수선(repair), 복원(restoration)하는 것으로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수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에는 기록의 보존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기록물을 생산, 이용, 관리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기록물 보존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다.

*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지방기록연구소(pami1024@gmail.com).

따라서 기록관리 담당자는 기록보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 담당자가 기록보존에 필요한 학문적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양한 관련 분야의 생소한 용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편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록보존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뿐만 아니라 건축·토목, 기계·공조, 소방·재난, 화공, 제지, 환경, 전자공학, 재료공학, 사진학, 통신, 인쇄, 지구과학 등 백과사전에 버금가는 방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록보존용어집』(이하 용어집)은 기록보존 전문가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편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용어집은 기록재료, 보존시설과 장비, 보존환경, 보안·재난관리, 보존처리와 복원 등 기록보존과 관련된 용어를 선별하여 핸드북(handbook) 형태로 발간하였다. 주요 용어들은 기록보존 분야의 기본개념은 물론 관련 법령, 표준, 지침, 시설, 장비, 용품, 규격, 단위, 단체 등 기록보존 전반을 다루고 있다.

용어의 표기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용어에 따라 한자 또는 영어를 병행 표기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용어 색인은 본문의 체계를 따르면서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한글 순으로 배열하였다. 용어 색인과 별도로 영어 색인이나 분류 색인을 추가하면 활용이 더욱 편리할 것이다. 본문의 용어는 설명과 함께 적절한 예 또는 그림을 삽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된 그림은 직접 촬영하거나 웹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이 용어집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기록관리 입문자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는 기록보존 분야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